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SENIOR **조선**

SEPTEMBER
2015
VOL.41
senior.chosun.com

Come Inside

스위스 시계 산업의 수도
뇌샤텔

2015 하반기 신차 8

Canon

OM LENS EF 24-70mm 1:2.8 L II USM

EOS
5Ds



malo

PARCO INTERNATIONAL INC. 02 2106 3300

HYUNDAI MAIN 02 3438 6273 HYUNDAI TRADE CENTER 02 3467 8936 HYUNDAI BUSAN 051 667 0185 HYUNDAI PANGYO 031 517 1253
LOTTE MAIN 02 772 3461 LOTTE JAMSIL 02 2143 7236 LOTTE BUSAN 051 810 4167 AK PLAZA BUNDANG 031 8023 2203 DEBEC PLAZA 053 256 3420



Inside

VOL.41 SEPTEMBER 2015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시니어조선〉

06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들.

08

Time for Autumn

올가을 당신의 손목을 책임질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를 엄선했다.

10

After Suncare

여름은 지나가고 무더위에 지친 피부만 남았다.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에 에너지를
선사해줄 제품을 모았다.

12

Sihning Gold & Silver

언제 어디서나 은은한 오라를 풍기는 금빛, 은빛 아이템.

14

올가을, 경기도로 힐링 여행을 떠나세요

경기관공사 홍승표 사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



16

이은경의 시계여행 스위스 시계 산업의 수도, 뇌샤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인 뇌샤텔 호수가 위치한
뇌샤텔 주(Canton of Neuchâtel)의
주도 뇌샤텔. 아름다운 호수와 최고의 와인 산지로도 유명한 뇌샤텔은
스위스 시계 산업 최대 중심지를 품고 있는 스위스 시계 산업의 수도다.

18

이토록 새로운 세계

완벽한 줄 믿었던 수많은 자동차들이 더욱 완벽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2015년 하반기에도 약 30종의 신차가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 딱 8대만 추렸다.

22

시니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안과 질환 5

시니어의 주요 안과 질환의 종류와 증상, 치료법, 예방법 등을 소개한다.

24

유어스테이지 클럽 탐방 삶의 새로운 재미와 여유를 켜다, '디카와 놀자'

유어스테이지에서는 동호회를 '클럽'이라 하며 그중 2012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진 찍기 클럽인 '디카와 놀자'를 소개한다.

26

이달의 정보

편안한 잡자리를 제공하는 덕시아나,
우아한 여성용 미니 위치를 선보인 론진,
추석 선물세트 6종을 제안하는 발렌타인,
명당을 추천하는 책 등을 만나보자.



캐논 EOS 5Ds
세계 최초로 약 5060만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풀 프레임 DSLR 카메라, EOS 5Ds.
뛰어난 해상도를 바탕으로 피사체의 섬세한
부분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으며,
최대 8688 x 5792 해상도는 대형 사이즈로
이미지를 출력해도 고품질의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5D 시리즈 최초로
캐논의 영상 처리 엔진인 '듀얼 디지 6(Dual DIGIC 6)'를
탑재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61포인트 고밀도 레티큘러 AF' 시스템과
252 분할 RGB+IR 측광 센서를 탑재해 촬영 시
정확한 노출값으로 빠르게 피사체를 포착해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다.
문의 1588-8133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PARTN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이사 조규숙 ks.cho@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황정원 hjw@chosun.com
기자 조가희 cgh@chosun.com
객원기자 김우성 ws.kim@yourstage.com
이은정 euninsa@gmail.com
사진 C. 영상미디어
디자이너 장선희 rioba@chosun.com
교열 최귀열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f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교회사
출력 아이엔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 분당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 지역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 강남, 신사, 압구정, 청담, 잠실, 송파, 이태원,
상청 및 경기 분당의 변화가 카페, 레스토랑, 병원, 은행,
호텔, 스포츠센터, 수입자동차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탐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Elegance is an attitude

Simon Baker
Simon Baker

LONGINES®



론진 현대 판교점 1F 8월 21일 그랜드 오픈 031 5170 2186

론진 부티크 | 신세계 본점 02 310 1597 신세계 인천점 032 430 1280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 1123

신세계 영등포점 02 2639 4089 | 경기점 031 695 1661 | 센텀시티점 051 745 1421

아워패션 롯데월드몰 코엑스몰 | 신세계 의정부 충청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 코엑스 부산 제주 인천공항 | 워커힐면세점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 인천공항 | 신세계면세점 | 동화면세점 | 엔타스면세점

Conquest Classic Moonphase



HOTEL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 익스클루시브 릴렉세이션 스파 패키지

서울 광진구의 랜드마크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이 9월 1일부터 '익스클루시브 릴렉세이션 스파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호텔은 넓고 쾌적한 실내 환경과 고품격 사무공간, 편리한 교통을 장점으로 내세워 많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익스클루시브 릴렉세이션 스파 패키지는 추석 명절 후 지친 심신의 피로 해소를 돕고 환절기 건강관리를 돕는 혜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스위트와 슈퍼리어 스위트 두 종류로 만날 수 있다. 스위트 패키지에는 스위트룸 1박 숙박권을 포함해 2인 조식 식사권, 2인 스파 이용권, 펜타즈 호텔 식음업장 할인 쿠폰북,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가격은 주중 29만7천원, 주말 31만9천원이다. 슈퍼리어 스위트 패키지에는 슈퍼리어 스위트룸 1박 숙박권을 비롯해 3인 조식 식사권, 3인 스파 이용권, 펜타즈 호텔 식음업장 할인 쿠폰북,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으로 구성했다. 가격은 주중 35만2천원, 주말 38만5천원이다. 단, 9월 25일~28일에는 모든 패키지에 주말 요금이 적용된다. 문의 02-2218-5777 Writer 조가희

WATCH

오피치네 파네라이, 새로운 파네라이 북 발매

오피치네 파네라이가 지난 6~7월 이탈리아에서 '파네라이'북을 출간했다. 책의 내용은 다섯 명의 작가가 오피치네 파네라이의 정체성을 다룬 에세이로 구성했다. 초기 파네라이 시계에 대한 이야기는 예술 평론가인 필립 다베리오가 다룬다. 두 번째 파올로 갈루치 교수는 파네라이의 시작을 함께한 토스카나가 시간 측정 장치 개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한다. 세 번째 파네라이 일가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지암피에로 네그레티가 소개하고, 영국계 저널리스트인 사이먼 드 버튼은 파네라이 워치의 뛰어나고 혁신적인 기술을 설명한다. 파비오 포초 작가가 쓴 마지막 에세이에서는 이탈리아 해군에게 공급했던 시간 측정 장비와 클래식 요트 문화를 활성화한 파네라이의 역사, 장인 정신, 독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책에 수록된 이미지들은 이탈리아 일러스트레이터인 빅터 토그리아니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가치를 더해준다. '파네라이'는 2015년 9월 15일부터 전 세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문의 070-5057-4217 Writer 조가희

Nouveau

액티브 시니어라면 주목해야 할 최신 트렌드와 브랜드 소식.



BEAUTY

색조 브랜드 어반 디케이 한국 론칭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획기적인 색조 화장품 브랜드 '어반 디케이'가 한국에 론칭했다. 어반 디케이는 '예지 있는 뷰티'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나라의 뷰티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다. 새로운 나라에서 론칭할 때마다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해 '뷰티계의 애플'이라는 애칭이 생겼을 정도다. 미국의 세계 최대 코스메틱 편집숍 세포라에서 선정한 메이크업 부문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블레이크 라이블리, 제니퍼 허드슨, 제니퍼 로렌스 등 할리우드 배우는 물론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비까지 많은 유명인사가 애용하는 화장품이다. 어반 디케이에서는 내추럴한 매력을 추구하는 여성부터 마성의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까지 모두 충족시키는 신선한 매력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어반 디케이 제품 중 아이섀도 팔레트인 '네이키드 팔레트'가 가장 인기가 많다. 네이키드 팔레트에 담긴 12가지의 다채로운 뉴트럴 계열 색도로 다양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하기 좋다. 지난 8월 21일 신촌 현대백화점 오픈을 시작으로 8월 28일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에 오픈한다. 온라인상에서는 현대 H몰과 갤러리아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6370-8561 Writer 조가희



STORE

어반 그린 라이프 문화공간, 퀸마마 마켓 오픈

도산공원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디자이너 윤한희 대표가 오픈한 퀸마마 마켓(Queenmama Market)이다. '어반 그린 라이프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은 의식주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패션부터 리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지하 1층은 가드닝 제품과 식기를 판매하는 숍이며, 지상 1층은 여러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의 컬래버레이션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2층은 디자이너 강진영의 'Gene Kei'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3층은 퀸마마 마켓의 P/B 브랜드인 'QMM Studio', 오픈에 참여한 아트 디렉터, 디자이너들이 직접 스타일링한 숍과 해외에서 바잉한 제품이 공존하는 '마켓'으로 꾸몄다. 도산공원이 내려다보이는 4층은 연남동에서 핸드드립 커피로 잘 알려진 매뉴팩트(Manufact)의 품질 좋은 커피를 판매한다. 특히 4층은 전 층이 온실 구조로 되어 있어 도심 속 따스한 자연과 함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70-4281-3370~4 Writer 황정원

STAGE

이반 투르게네프 원작 <아버지와 아들> 국내 초연

러시아 3대 문호 이반 투르게네프 원작 <아버지와 아들>이 9월에 국내 초연한다. 19세기 러시아 사회가 겪고 있던 세대 간 갈등과 심리를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소설 <아버지와 아들>을 극작가 브라이언 프리엘이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인물들은 현대인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프리엘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갈등'이라는 원작의 주제를 잘 살리면서도, 불안한 일상 속 인물 간의 엇갈리는 사랑 이야기를 극대화했다. 이상적 자유주의자 '빠벨'은 배우 남영렬이, 보편적 시골 아버지인 '바실리' 역은 원로 배우 오영수가 맡았고, 그의 아내 역에는 <3월의 눈>에 이어서 박혜진이 다시 한 번 노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전형적인 지주 계급인 아버지 '니콜라이'는 중견 배우 유영수가, 매력적인 여주 '안나' 역에는 김호정이 캐스팅되었다.

9월 2일부터 25일까지, 명동예술극장, R석 5만원. 문의 1644-2003 Writer 이은정





A JOURNEY THROUGH TIME – WITH RIMOWA

The 1920s marked the beginning of modern air travel and the golden age of Hollywood. In 1919, Hugo Junkers presented the world's first all-metal commercial aircraft. It was made using the aircraft aluminum alloy discovered by Alfred Wilm in 1906. In 1950, RIMOWA presented its suitcase with the unmistakable grooved design made of the same material – at the time, it was the lightest suitcase in the world. RIMOWA was a real pioneer in the sector, starting the trend for lightweight luggage back then.

RIMOWA Stores Korea : 청담스토어 02.546.3920, 명동스토어 02.6361.8320, 신사스토어 02.540.392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44, 본점 02.3438.6142, 대구점 053.245.2211, 판교점 031.5170.1271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4, 본점 02.2118.6077, 부산본점 051.810.3166, 센텀시티 051.730.3253, 롯데호텔 월드점 02.2143.1043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1639, 갤러리아 WEST 02.6905.3921,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3920, AK 플라자 분당점 031.8023.2166



www.rimowa.com

TIME FOR AUTUMN

남성 패션의 완성은 구두와 시계라고 했던가. 평범한 룩이라도 잘 고른 시계 하나면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다. 올가을, 당신의 손목을 책임질 시계를 모았다. 다이얼을 채우는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는 남성미를 강조하고, 가죽 스트랩은 클래식한 이미지를 완성해줄 것이다.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영상미디어)

1 오메가 드 빌 크로노그래프 코-엑시얼 9300
42mm 크기의 파란빛 다이얼이 돋보이며 레드 골드 케이스와 악어가죽 스트랩이 세련미를 더한다. 코-엑시얼 무브먼트 9301을 탑재, 60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3천4백만원대.

2 피아제 알티플라노 크로노그래프 8.24mm 다이얼 두께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이며,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약 50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3천6백만원대.

3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 크로노그래프 45mm의 압도적인 다이얼 사이즈에 구조적인 베젤 디자인이 멋스러운 이 워치는 42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4천6백만원대.

4 로저드뷔 엑스칼리버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데이트 42mm 엑스칼리버 칼집 디자인이 돋보이는 핑크 골드 케이스와 갈색 악어가죽 스트랩이 고급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셀프와인딩 칼리버 RD681을 탑재하고 52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5천4백만원대.

5 지라드 페리고 1966 크로노그래프 40mm의 다이얼 크기에 케이스는 핑크 골드로 디자인했으며, 칼럼 휠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해 고전미를 강조했다. 무브먼트 GP030C0을 탑재해 36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3천1백만원대.

6 보메 메르시에 케이프랜드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20세기 초에 출시된 조약돌 모양 시계 '갈레 라인'을 따른 제품이다. 오프 화이트 컬러 다이얼과 파란색 핸즈로 한층 스포티한 감성을 담았다. 9백만원대.

7 IWC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IWC를 대표하는 시계로 은색 다이얼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서브 다이얼들과 볼록한 아라비아 숫자들, 잎사귀 모양의 시침과 분침으로 독특하게 완성했다. 칼리버 79350을 탑재, 44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 9백70만원대.

8 몽블랑 헤리티지 스피릿 크로노메트리 펄 소그래프 150년이 넘는 전통 시계 제작의 장인 정신이 깃든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하고 빌레 매뉴팩처 무브먼트 몽블랑 M13.21을 장착했다. 41mm 레드 골드 케이스가 은은하게 빛난다. 4천3백만원대.



문의
IWC 02-3213-2268
로저드뷔 02-3440-5812
몽블랑 02-3440-5734
보메 메르시에 02-310-9028
오메가 02-2143-7266
위블로 02-3279-9043
지라드 페리고 02-3467-8372
피아제 02-540-2297



MARSHAL

PREMIUM GOLD EDITION V5



勝者로 기억될 것이다!

名品 그 이상의 가치
MARSHAL!

AFTER SUNCARE

여름은 지나가고 무더위에 지친 피부만 남았다.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에 에너지를 선사해줄 제품을 모았다.
제형도 성분도 다양한 제품으로 건조한 가을을 이겨낼 수 있는 피부로 회복하자.

Writer 조가희 · Photographer 양수열(C. 영상미디어)

1 라프레리 쉘루라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에멀전
유해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 받은 피부에 24시간 내
내 수분을 공급하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기능이 탁월하
다. 50ml, 40만5천원.

2 SK-II 피테라 미스트 피부 본연의 건강한 컨디션
을 회복하도록 돕는 피테라 성분을 함유했다. 미세한
분사 입자로 피부 속에 빈틈없이 침투해 수분을 채워준
다. 50ml, 7만원대.

3 달팡 오렌지블러썸 아로마틱 케어 순수한 오가닉
의 7가지 브라이트닝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고농축한
제품으로 피부를 정화해주고 윤기를 부여한다. 15ml,
12만원.

4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의 온천수가 건조하고 과민한 피부를 진
정시키며 방어력을 강화해준다. 125ml, 6만5천원.

5 오리진스 클리어 임프루브먼트 화이트 차이나 클
레이가 부드럽게 피부에 밀착해 축적된 독소를 씻어내

고 모공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남김없이 끌어내준다.
100ml, 3만8천원대.

**6 시슬리 선리아 에이지 미니마이징 애프터 선크
어** 태양광선으로부터 자극받고 상한 피부를 진정시키
고 안티에이징 포뮬러가 피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
도록 돕는다. 50ml 24만원.

**7 톰 포드 뷰티 톰 포드 포 맨 스킨 리바이탈라이징
컨센트레이트**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
키고 피부 결을 매끄럽게 가꿔준다. 20ml, 22만원.

8 랑콤 이드라젠 수분 젤 슬리핑 팩 자는 동안 피
부에 쌓인 유해 물질을 세정하고, 영양을 공급해 생
기 넘치고 윤기 나는 건강한 피부를 선사한다. 75ml,
8만원.

9 키엘 오일 프리 쿨링 수분 젤 크림 바르는 즉시 피
부 온도를 낮춰 더위에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준다. 50ml, 3만9천원대.



문의

SK-II 080-023-3333

달팡 02-3440-2706

라프레리 080-511-6626

랑콤 080-022-3332

비오템 080-023-7007

시슬리 080-549-0216

오리진스 02-3440-2783

키엘 02-3497-9533

톰 포드 뷰티 02-3440-2760



365일 피부 지킴이
도심 속 따가운
자외선을 *산뜻하게* 차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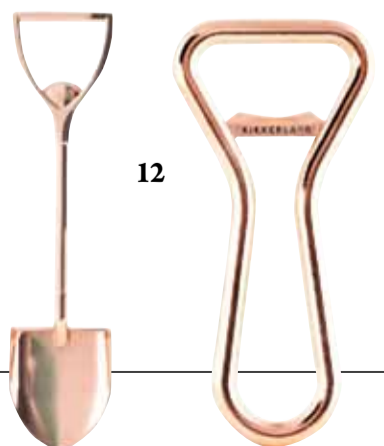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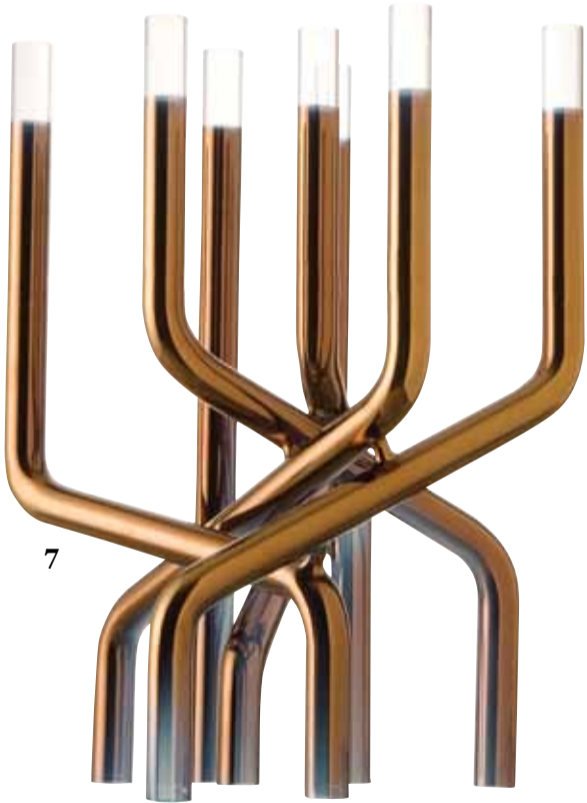


닥터코스메틱 이지함화장품

판매처 : 이지함화장품 쇼핑몰(www.ljhmall.com), 드렉스토어(GS왓슨스)
이지함피부과 : 강남, 강북, 구리, 구미, 분당, 부산, 이대, 일산, 여의도, 청담, 천호
소비자상담실 : 080-700-1544

SHINING GOLD & SILVER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골드는 고급스럽다.
차가워 보이는 실버는 모던하다. 반대의 성질을
지닌듯 하지만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 화려하게
빛날 줄도 알고 빈티지한 멋도 낼 줄 안다는 것.
언제 어디서나 은은한 오라를 풍기는 금빛,
은빛 아이템을 살펴보자. Writer 조가희



1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접시와 수저, 포크는 가격미정, **해브빈서울**. 2 서울을 상징하는 종, 궁, 남산 등의 장식이 돋보이는 티스푼&포크 세트는 5만원, **해브빈서울**. 3, 4 욕실 청소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솔을 보관할 수 있는 홀더는 각각 13만6천원, 11만5천원, **게디코리아**. 5 화려하게 빛나는 색다른 티슈 케이스는 5만5천원, **게디코리아**. 6 세련미와 묵직한 웅장함이 느껴지는 테이블은 4백만원대, **카텔란 이탈리아 by 도무스 디자인**. 7 디자이너 아릭 레비가 선보이는 구조적인 실루엣의 촛대 겸 인테리어 오브제는 1백만원 중반대, **가이아&기노 by 보에**. 8 작지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휴지걸이는 8만1천원, **게디코리아**. 9 제이미 하연이 디자인한 오브제로 미래의 희망을 얘기한다는 의미를 담은 소품 '호퍼드'는 가격미정, **웰즈**. 10 테디베어 안에 백을 넣을 수 있어 액세서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소파백은 3만3천원(스몰 사이즈), **페리고**. 11 오랫동안 사용해도 변하지 않는 튼튼한 빗은 4만5천원, **아이즐라**. 12 샵의 모양을 형상화해 위트를 더한 오픈너는 1만8천원, 빈티지 스타일의 심플한 오픈너는 1만5천원, **키커랜드**.



1

1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장소에서도 잘 어우러지는 조명은 55만원, **에이치픽스**. 2 스프링 효과로 통통 튀는 캐릭터가 귀여운 인테리어 소품은 각각 8만4천원(大), 5만6천원(小), **홀티미스트 by 이노메싸**. 3 양증맞은 에스프레소 은잔 1인 세트는 7만5천원, **해브빈서울**. 4 버섯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버섯 전용 솔은 1만6천원, **쿠첸프로피 by 칸트**. 5 벽에 걸어 연출하는 톱니바퀴 모티브 시계는 19만5천원, **키커랜드**. 6 여러 개의 초를 꽂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촛대는 35만원, **바이라센 by 이노메싸**. 7 접었다 펼 수 있는 와이어로 제작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바구니는 3만1천원, **키커랜드**. 8 호두 껍데기 같은 딱딱한 것을 깨기 위한 다람쥐 모양 너트 크래커는 7만4천원, **비체베르사 by 게디코리아**. 9 보드카나 위스키 등의 알코올을 담아 마실 수 있는 플라스크는 3온즈 4만5천원, 5온즈 5만원, **아이즐라**. 10 스테인레스틸로 제작해 위생적이며 내구성이 뛰어난 보온병은 4만5천원, **아이즐라**. 11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폴리스타노 체어는 가격미정, **오브젝트 by 보에**. 12 다양한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이동이 간편한 양동이는 16만9천원, **페리고**.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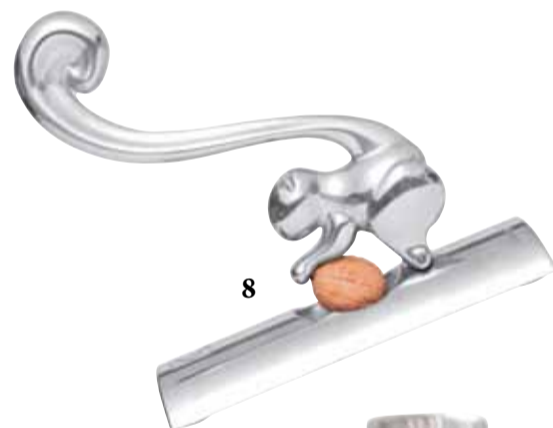
5



6



7



8



9



10



11



12

문의
게디코리아 02-542-9747
도무스 디자인 02-6091-3295
보에 02-517-6326
아이즐라 070-8811-1039
에이치픽스 070-4656-0175
웰즈 02-511-7911
이노메싸 02-3463-7710
칸트 1599-7299
키커랜드 02-562-8701
페리고 02-487-9959
해브빈서울 070-4415-1508



올가을, 경기도로 힐링 여행을 떠나세요

한여름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계절의 힘으로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때다.
이럴 때 힐링이 되는 가벼운 여행을 떠나보자.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듣는다. Writer 이채현 · Photographer 백이현

가을 힐링 여행의 최적지, 경기 북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은 여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계절이다. 운동화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트레킹을 하거나 신선한 바람을 마주하며 자전거를 타기에 도 좋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계곡이나 바다로 여행을 다녀왔다면 가을에는 코스모스길을 따라 당일로 가볍게 다녀오는 걸 추천한다. 이런 느린 여행을 가기 좋은 곳이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 하면 ‘가볼 만한 곳이 어디지?’ 하며 섣뚱 떠오르지 않겠지만 의외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다.

31개 시군과 서울의 17배에 이르는 면적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경기 북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DMZ(비무장지대), 그리고 경기 남부 여주와 이천, 광주의 도자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남한산성, 조선왕릉,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에

버랜드와 민속촌 등 경기도에는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다. 특히 최근 경기 북부 관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홍승표 사장은 경기 북부 여행지 몇 곳을 추천했다.

“경기 북부는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큰데 그 가치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 많고, 세계 유일의 DMZ 등 관광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한탄강과 임진강변의 아름다운 자연은 경기 북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지요. DMZ 권역은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또 파주의 임진각평화누리과 헤이리마을, 아울렛, 캠프그리브스 등을 묶으면 1박 이상 체류형 관광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이나 둘레길 못지않은 경기도 ‘평화누리길’도 가볼 만한 곳이다. 가을 걷기 여행으로 전혀 손색없는 평화누리길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에 걸쳐 총 191km, 12코스로 조성돼 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12코스를 다 돌아볼 수 없다면 그중 분단의 현장을 볼 수 있는 1코스 김포 염하강 철책길, 대자연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8코스 파주 반구정길, 그리고 그림같이 펼쳐진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11코스 연천 임진적벽길만이라도 꼭 가보길 권했다.

안보·군사의 이미지이던 곳이 관광 활성의 중심지로, DMZ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인 DMZ다. 홍승표 사장은 관광지로서 DMZ의 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DMZ는 앞으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DMZ 권역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현재 DMZ권 관광지로는 임진각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등이 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안보와 군사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 평화와 생태,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임진각평화누리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면 돛자리 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벌써 5년째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2015년 9월 12일 개최 예정)’ 같은 대규모 음악 공연도 열립니다. 그뿐 아니라 DMZ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DMZ 자전거 투어’도 매달 한 번씩 신청을 통해 300명을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족 단위 여행이나 취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단순한 힐링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DMZ로 여행을 떠나보자.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DMZ 체험관’

DMZ 권역을 좀 더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면 ‘캠프그리브스’를 이용해보자. 미군 철수 이후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 부대를 활용해 유스호스텔로 운영하는 ‘캠프그리브스’는 DMZ 권역을 제대로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곳에서 숙박을 하며 흔히 접하기 힘든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구경할 수 있다.

신청 30명 이상 단체 비용 성인 1인당 2만5천원(식사, 강당 대관 별도)

문의 dmzcamp131.or.kr, 031-953-6970

어깨 : 3.18Kg

각 영역에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포켓
스프링 코어 매트리스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몸통 : 32.53Kg

세계최고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갖춘
베이스슬랫과 정력조절 포인트가 척추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팔뚝, 손 : 2.8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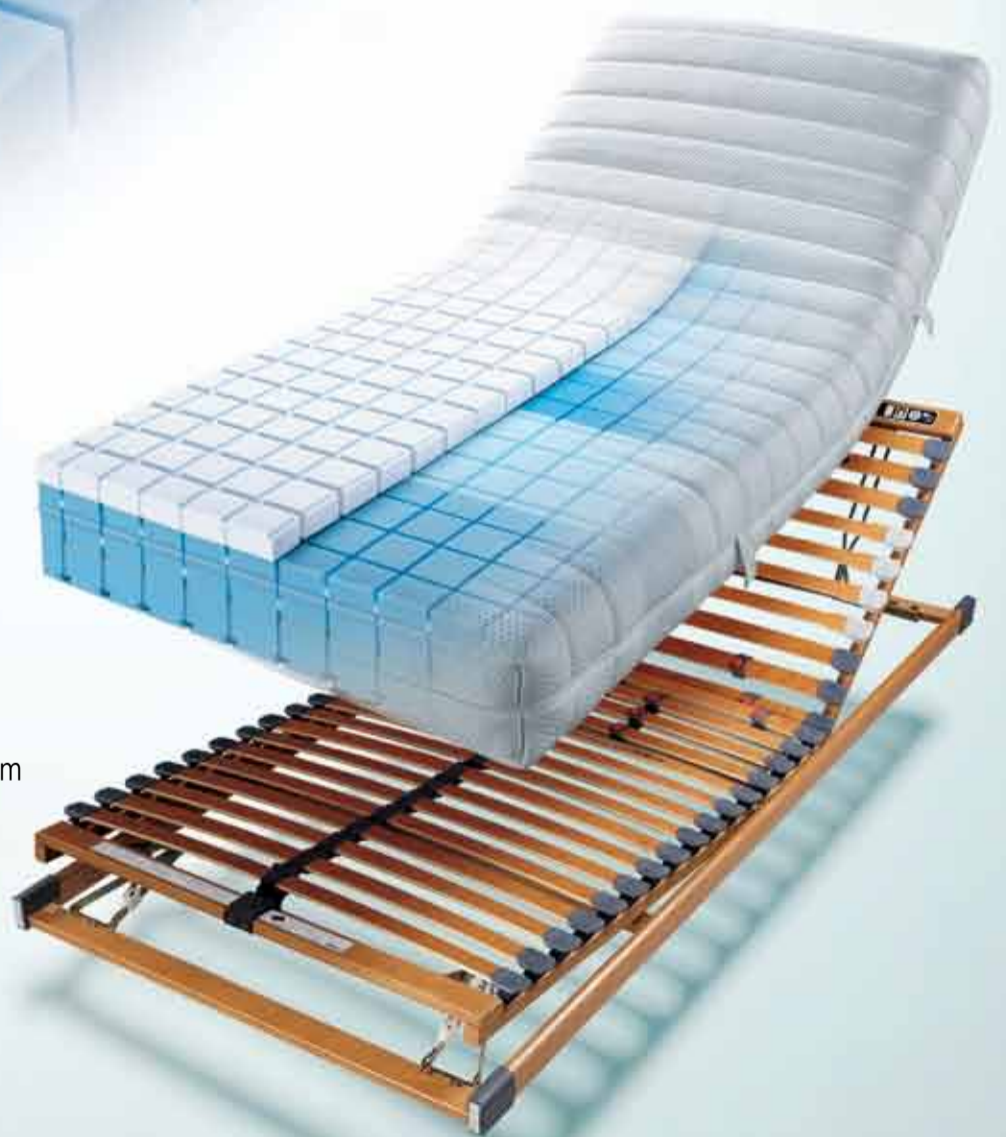
분리형 트위드가 작은면적에도 공기
순환으로 쾌적한 수면을 보장합니다

머리 : 3.05Kg

오래 사용해도 패임현상이 없는 HR*골드폼
매트리스가 변함없는 쿠션을 제공합니다

hülsta는 당신의 몸 하나 하나를 기억합니다

독일 기술이 선사하는 품격있는 수면 개별 맞춤 Sleeping System



이은경의 시계여행

스위스 시계 산업의 수도 뇌샤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인 뇌샤텔 호수가 위치한 뇌샤텔 주(Canton of Neuchâtel)의 주도 뇌샤텔. 아름다운 호수와 최고의 와인 산지로도 유명한 뇌샤텔은 스위스 시계 산업 최대 중심지를 품고 있는 스위스 시계 산업의 수도다.

Writer 이은경(시계 컨설턴트, <시계, 남자를 말하다> 저자)

뇌샤텔은 쥐라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제네바, 루체른, 취리히, 바젤 등 스위스 유명 도시에서 1~2시간 걸리는 교통의 요지 중 한 곳이다. 뇌샤텔은 스위스 최대 와인 산지로, 기차역 주변에 길게 와이너리가 펼쳐져 있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곳 와인을 최고로 친다. 그래서 관광객보다 스위스인에게 더 잘 알려진 곳이 바로 뇌샤텔이다.

아름다운 호수와 성으로 둘러싸인 대학 도시

얼마 전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18세기에 제작한 로봇 인형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전거나 전지 등이 없던 시절 오직 기계의 힘만으로 작동하는 로봇 인형을 본 프랑스 사람들은 그 안에 사탄이 들어 있다고 믿었다. 이에 시계 제작자 피에르 자케 드로는 기계를 열어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서야 오해를 풀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인을 놀라게 하고, 스페인과 중국 왕실까지도 매료시킨 피에르 자케 드로의 오토마타는 현재 스위스 뇌샤텔 예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가 바로 뇌샤텔 출신의 위치메이커이기 때문이다.

제네바 또는 취리히 등 스위스의 주요 도시와 여행지 말고 뇌샤텔을 일부러 여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인 뇌샤텔 호수가 있고, 중세시대의 성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세계적인 관광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시계 애호가들에게 뇌샤텔은 조금 더 특별한 곳이다. 자케 드로의 오토마타를 볼 수 있는 고장임과 동시에 라쇼드퐁과 르로클 등 시계의 본고장으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뇌샤텔을 '대학 도시'라고 부르는데 뇌샤텔 대학을 비롯해 유서 깊은 대학이 많다. 스위스 정부가 위치메이킹과 사후 관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시계 학교 보스텝(Wostep)이 있는 곳도 뇌샤텔이다. 2년에 한 번씩 단 여섯 명의 학생만 선발하는 보스텝은 위치메이커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1



2

사진 depositphotos



3

유서 깊은 시계 공방이 자리한 곳

뇌샤텔에 본사를 둔 시계 브랜드도 많다. 자케드로는 뇌샤텔을 대표하는 시계 브랜드 중 하나다. 1721년 뇌샤텔의 작은 마을 라쇼드퐁에서 태어난 피에르 자케 드로는 바젤 대학에서 공부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첫 번째 위치메이킹 공방을 열었다. 1758년 스페인 마드리드의 페르디난트 6세에게 시계를 판매함으로써 명성을 얻은 그는 자동 인형 제작에 열정을 쏟았다. 이후 수학, 철학, 과학, 미술을 공부한 그의 아들 앙리 루이와 합작해 전 세계를 상대로 시계를 판매했다. 1775년에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앞에서 작가, 화가, 피아니스트인 3개의 자동 인형을 선보였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오토마타다.

이탈리아 태생의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가 시계 비즈니스를 위해 선택한 곳도 뇌샤텔이다. 1975년 VIP 고객용 선물 시계로 선보인 불가리 로마 시계가 큰 인기를 얻자, 1977년 불가리 컬렉션을 론칭한 불가리는 1980년대 초반 뇌샤텔에 시계 라인의 창조와 생산을 위한 불가리 타임을 설립했다. 이후 뇌샤텔 인근에 위치한 시계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인수, 인하우스 무브먼트부터 케이스, 브레이슬릿 등 모든 시계 관련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정통 워치 브랜드로 거듭났다.

이탈리언 디자인과 정통한 스위스 장인정신의 독특한 결합으로 더욱 인기 있는 오피치네 파네라이의 모든 시계들도 스위스 뇌샤텔에서 생산된다. 2002년 설립한 뇌샤텔 매뉴팩처에서 무브먼트, 케이스를 자체 개발, 설계, 제작하고 밀라노 본사에서는 제품 개발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컨트롤을 담당한다. 파네라이는 2005년 첫 번째 자사 무브먼트 P.2002를 론칭한 후 꾸준히 자사 무브먼트를 선보이고 있다.

시계 역사와 함께한 뇌샤텔 천문대 경연대회

시계 산업에서 뇌샤텔을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뇌샤텔 천문대다. 런던 큐 천문대, 제네바 천문대 그리고 뇌샤텔 천문대는 현대 시계의 역사와 각 시계 브랜드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 뇌샤텔 천문대는 지금의 크로노미터 인증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뇌샤텔 천문대는 지형적 조건이 좋지 못해 천문 관측이 어려운 곳임에도 정확한 관측과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메가, 지라드 페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그리고 일본 브랜드 세이코 등 많은 브랜드가 뇌샤텔 천문대가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참가했고, 이곳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브랜드의 시간 계측 정확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식 크로노미터 인증(COSC)이 없던 시절, 시계 브랜드들은 1866년부터 시작된 뇌샤텔 천문대 크로노미터 경연대회를 통해 정밀하게 제작한 시계들을 소개했다. 무브먼트의 정확도를 까다롭게 측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뇌샤텔 천문대 경연대회의 우승은 곧 브랜드의 명성으로 이어졌고, 경연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본격 생산했다. 1966년 지라드 페리고는 천문대 관측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간의 정확도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고, 이를 기념해 '지라드 페리



고 1966'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컬렉션은 지금까지 지라드 페리고를 대표하는 컬렉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 뇌샤텔에서 기차를 타고 20여 분 가면 스위스 시계의 메카, 라쇼드퐁이 자리해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시계 산업으로 특화된 라쇼드퐁과 르로클의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만나보자.



- 1 뇌샤텔 거리 풍경.
- 2 뇌샤텔 출신의 위치메이커 피에르 자케 드로.
- 3 피에르 자케 드로의 오토마타.
- 4 오피치네 파네라이의 뇌샤텔 매뉴팩처.
- 5 불가리가 탄생 40주년을 맞아 제작한 불가리 로마 피니시모.
- 6 뇌샤텔 천문대 경연대회에 참가해 정확도를 인정받은 지라드 페리고.
- 7 불가리가 뇌샤텔에 설립한 불가리 타임.





▲ 미니 NEW 클럽맨



▲ 지프 레니게이드



크라이슬러 뉴 300C ▶



BMW 7시리즈 ▶



이토록 새로운 세계

진화는 끝나지 않는다. 완벽한 줄 믿었던 수많은 자동차들이 더욱 완벽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2015년 하반기에도 약 30종의 신차가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그중 딱 8대만 추렸다.

Writer 정우성(GQ KOREA) 자동차담당 기자

BMW 7시리즈

10월에 출시하는 BMW의 기함이다. 기함에는 늘 한 세대를, 당대의 기술을, 브랜드 철학을 대표하는 어떤 정수가 녹아 있다. 그렇다면 공개된 사양 중 최상위 모델, 750Li xDrive의 제원을 살짝 볼까? 4395cc V8 직분사 트윈 터보 가솔린엔진이 내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최고출력 450마력, 최대토크 66.2kg·m,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4.4초. 무게는 약 1.9톤. 그럼 이렇게 달릴 때 실내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손에 닿는 모든 감촉의 호사스러움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풍요로울까? 그러면서도 BMW 특유의 공격적이면서도 정교한 성능이 그대로 살아 있는 쾌락은?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를 정조준하는 모델이라고, 미디어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상황이 그런 것도 사실이다. 지금 취할 수 있는 극상의 BMW다. 10월 중 출시 예정.

미니 NEW 클럽맨

지금까지 미니 클럽맨을 이해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넓은 트렁크 공간이었을까? 냉장고처럼 여담을 수 있는 문의 형식? 미니 뉴 클럽맨은 그 폭을 공격적으로 확장했다. 이 차는 '미니의 리무진 버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확연히 고급스럽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미니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다. 그윽하게 농익었다. 하지만 미니의 가치는 그대로다. 역시 지금까지의 모든 미니가 그랬듯이 여전히 아찔할 정도로 재미있게 달릴 수 있을 것이다. 3세대 미니의 진화는 성공적이었다. 2015년 상반기, 미니를 선택한 사람 중 15%가 50대라는 건 무슨 뜻일까? 미니의 재미와 가치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클럽맨은 미니의 모든 가치에 넉넉한 공간과 품위를 보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유쾌하게 미니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10월 중 출시 예정.

지프 레니게이드

레니게이드는 지프가 처음 만든 소형 SUV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가장 치열한 장르에 정통의 SUV 메이커 지프가 던지는 웅골찬 출시표다. 2360cc 직렬 4기통 가솔린엔진은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24.5kg·m을 낸다. 자동 9단 변속기는 은근하고 끈질기게, 뜸직하면서도 조용하게 엔진과 구동계 사이를 잇는다. 이 SUV에 '도심형'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까. 크기와 쓰임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가능한 일. 하지만 지프가 오프로드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좀 섭섭한 수식이 될 것이다. 레니게이드는 어떤 험로에서도 뒷걸음칠 생각이 없다. 도심을 지향하면서도 쟁쟁한 오프로드 실력을 갖췄다. 지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실력이야말로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싶은 레니게이드의 의지이자 마음이다. 9월 중 출시 예정.

크라이슬러 뉴 300C

미국차에는 시트에 앉는 순간 마음을 툭 놓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런 퇴근길이라면 그저 안락하게 누리고 싶을 때 간절하게 생각나는 한 대의 차이기도 하다. 운전석에선 누군가에게 안긴 듯하다. 인테리어는 충분히 고급스럽고 다분히 미래적이다. 두툼하고 믿음직한 양감, 디자인에 묻어 있는 권위. 어디서든 물러설 일은 별로 없이 위풍당당한 크기. 전장은 5m가 넘고, 폭은 2m에 가깝다. 배기량도 넉넉하다. 3604cc 가솔린엔진이 내는 최고출력은 286마력, 최대토크는 36kg·m이다. 크라이슬러 뉴 300C야말로 '모자람이 없다'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형 세단 아닐까. 이미 풍족하니까,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조차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4천4백80만~5천5백80만원.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이스테이트 ▶



▼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1.6



폭스바겐 골프 R ▶



▲ 재규어 XE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이스테이트

작년 6월이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C클래스를 출시했을 때 시장은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았다. 경쟁 모델과의 판매량을 비교할 이유조차 없어 보였다. C클래스는 벤츠가 이미 그 세계관 자체로 완벽을 추구할 줄 아는 브랜드라는 맑은 증명 같았으니까. 올 하반기에는 C클래스 이스테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스테이트는 벤츠가 왜건을 부르는 고유의 명칭이다. 아직도 왜건을 짐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한국적' 편견이라고 부르는 일은 합당할까? 왜건은 평일과 주말, 일상과 일탈, 출퇴근과 레저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장르의 이름이다.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유난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한번 직접 보고 느껴보길. 손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권하고 싶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1.6

일곱 명이 산뜻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밴이다. 더불어 운전석에 앉은 순간 전혀 새로운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진다.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넓은 시야, 더불어 이 넓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수많은 배경을 생각하게 된다. 전남 어딘가의 우거진 숲이라도, 남쪽 바다의 아름다움이라도 좋을 것이다. 조수석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풋 레스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풋 레스트까지 펼쳐면 편안하게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의 실내에는 생활하면서 발견하고 또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세부 사양이 있다. 이것이 프랑스 자동차의 재미이자 시트로엥만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는 2.0 디젤엔진을 쓰는 모델만 있었다. 새로 출시하는 1.6 디젤엔진 모델은 조금 더 합리적인 이동을 보장한다. 9월 중 출시 예정.

폭스바겐 골프 R

이 차를 탄 새벽에는 거의 홀린 것 같았다. 마법에 가까운 쾌감. 차체에는 골프 본연의 수수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속도와 힘을 낸다. 2.0리터 직렬 4기통 가솔린엔진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최고출력 292마력은 어디서 나올까. 38.7kg·m나 되는 최대토크는?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자그마치 4.9초다. 포르쉐 박스터 GTS가 4.7초였다. 이 정도면 골프 GTI를 두고 '베이비 포르쉐'라는 별명을 붙인 누군가는 좀 머쓱할 지경이다. R은 이렇게 위풍당당한 폭스바겐의 고성능을 상징하는 단 한 글자의 알파벳이다. 지금 출시돼 있는 다른 모든 스포츠카와 자웅을 겨루면서 골프 본연의 매력까지 그대로 간직했다. 쉽게 과시하는 성격도 아닌데, 누구한테 뒤질 성능도 아니라는 뜻이다. 9월 중 출시 예정.

재규어 XE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재규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디자인에는 거의 빈틈이 없다. 이렇게 탄탄한 비율과 기세를 갖춘 재규어 세단은 사실상 없었다. 2014년 파리 모터쇼에선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에 선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정확하게 스포츠 세단을 표방한다. 날렵하고 정확한 운전으로 거의 흠잡기가 어려웠던 BMW 3시리즈를 정조준한 셈이다. 재규어 XE에는 크기와 관계없이 느낄 수 있는 영국차 특유의 위트가 있고, 재규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차, 첨단 장비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손맛과 실력을 기반으로 즐길 수 있는 차가 재규어다. 여기에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영국의 고고한 품위가 무심하게 묻어 있다. 세 가지 엔진, 다섯 가지 모델이 준비돼 있다. 가격은 4천7백60만~6천9백만원.



1

도자기와 역사, 문화관광의 도시

규슈 사가 현을 가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고대부터 현재까지 한일 간에 역사와 문화 교류가 많았던 만큼 일본에는 우리 민족의 흔적과 자취가 많이 남아 있다. 일본 속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사가 현을 소개한다. Writer 강성철 · Photographer 강성철, 임정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마을

사가 현은 일본의 규슈 북서부에 위치해 있다. 일본의 문화유산과 도예문화 전통을 이어온 의미 있는 곳으로, 구석구석 일본 역사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 먼저 사가 현을 여행할 때 들러야 할 대표 유적지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을 소개한다. 요시노가리는 '좋은 들판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2300년 전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를 전해준 마을이다. 일본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의 야요이시대를 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일본의 농경 문화가 시작된 지역이며, 집단 주택지로 당시의 생활 모습과 마을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우리나라 영암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간자키시'도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이곳에 가면 일본에 처음으로 천자문과 논어를 전한 '왕인' 박사를 기리는 왕인 신사와 왕인 천만궁을 볼 수 있다. 뛰어난 도예문화를 자랑하는 사가 현을 방문했으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마을 아리타와 이마리도 꼭 둘러봐야 한다. 아리타에는 일본 최초의 백자를 만든 조선의 도공 '이삼평'을 도조로 기리는 도잔 신사 및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마리의 오카와치야마에서도 조선 도공들의 넋을 기리는 '도공 무연탑'과 '고려인의 비'를 볼 수 있다. 항구 도시 '가라쓰'도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조선분청사기가 일본화



4

된 '가라쓰야키 가마터'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축조한 '히젠 나고야 성터'가 있다. 히젠 나고야 성터에서는 백제 무령왕이 탄생한 섬인 가카라시마를 볼 수 있다. 현재 가카라시마에는 공주시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운 무령왕 탄생 기념비가 있으며 무령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오비아우라 동굴터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가라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라쓰 성도 꼭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성채가 양쪽의 넓은 백사장 가운데 있어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과 비슷해 '무학성'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사가 현에서 즐기는 특색 있는 올레길

사가 현에서는 다양한 올레길을 만날 수 있다. 사가 현 남부, 나가사키 현과의 경계에 있는 다케오 올레길. 130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다케오 온천과 3천 년 된 신비한 녹나무 숲, 호수를 모두 만나는 길이다. 봄이 되면 화려한 벚꽃과 철쭉이, 가을에는 600종류가 넘는 단풍이 넓은 대지 위에 펼쳐져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 두 번째는 제주도과 자매결연을 맺은 가라쓰 올레길. 길을 걷다가 히젠 나고야 성터에 다다르면 대마도와 대한해협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다. 400년간 이어져온 옛길, 주상절리, 소나무 숲, 해변까지 제주도와 비슷한 이국적인 분위기의 해안 올레길이다. 일본 3대 소나무 숲 중 하나로 꼽히는 가라쓰의 '니지노 마츠바라'도 놓쳐선 안 되는 곳이다. 가라쓰 만의 해안선을 따라 길이 5km, 폭 1km에 걸쳐 무지개 형태로 늘어선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룬다. 소나무 향을 맡으며 아침에 산책하거나 자전거, 자동차로 즐기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이다. 가가미야마 전망대에 가면 가라쓰 만의 대한해협과 소나무 숲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말 것. 끝으로 일본의 3대 미용 온천이 있는 우레시노 올레길. 도자기 마을 '요시다 사라야' 지역에서 출발해 녹차밭, 메타세쿼이아가 펼쳐진 '22세기 아시아의 숲'을 걷고, 온천물에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힐링 코스로 추천한다.



5



2



3



6



7

- 1 요시노가리 역사공원.
- 2 다케오 온천의 상징인 사쿠라몬(누문).
- 3 왕인 천만궁.
- 4 미후네야마 라쿠엔.
- 5 가라쓰 성. 충추는 학처럼 아름답다.
- 6 사가현립나고야성 박물관.
- 7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가라쓰 올레길.

교통편

사가 현으로 가는 항공편

- 티웨이항공의 직항(인천~사가/80분 소요), 후쿠오카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

사가 현으로 가는 배편

- 쾌속선 코비호(부산항~하카다항/3시간 소요), 뉴캐멜리아호(부산항~하카다항/6시간 소요)를 거쳐 버스나 열차로 환승.
- 사가 현 내에서는 사가공항과 우레시노, 다케오, JR하카타 역을 잇는 쿠루쿠루 셔틀을 이용하면 사가 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 편리하다.

여행 정보

사가관광연맹 www.asobo-saga.jp
웰컴사가 www.welcome-saga.kr
관광여플 'DOGAN SHITATO'
<http://saga-travelsupport.com/kr>



초저금리 시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추천하는 시니어를 위한 예금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 재무관리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펀드, 주식 중심의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인생에서 한 박자 쉬어가는 지금, 필요에 따른 신중한 금융상품 선택이야말로 앞으로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Writer 이은정

계좌 이동제로 편리해진 통장관리

은퇴를 경험한 사람이나 은퇴 예정자들은 계속 경제활동을 하길 원한다. 시니어들이 끊임없이 재테크와 재창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그 이유다. 앞으로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의 이익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과 상품 선택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오랫동안 이용해온 주거래 은행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동이체가 연결된 계좌를 일일이 옮기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 은행의 좋은 상품을 알아도 그냥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계좌 이동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계좌 이동제’란 고객이 보다 간편하게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를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출금이체나 납부자 자동이체 항목을 자동으로 한 번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한마디로, 클릭 몇 번으로 계좌 이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다.

재테크와 재창업에 적합한 마이플러스통장

기존금리 1.5%인 초저금리 시대인 요즘, 각 은행은 계좌 이동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우수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 이익이 높은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각 은행에서 선보이는 예금 상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좀 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재테크와 재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에게는 단기간 예치해도 고금리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적합하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최근 출시한 ‘마이플러스통장’에

주목해보자. 이 상품은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잠깐 넣어두기만 해도 1.7%라는 고금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잠시 예치하기만 해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숨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낮다는 인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뿐 아니라 자녀들의 결혼자금, 주택 구매비 또는 목돈이나 투자금 등을 잠시 예치해두는 ‘파킹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고금리를 받는 데 조건은 단순하다. ‘전월과 비교해 평균 잔액을 유지’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1천만원 이상 예치 금액 전체에 대해 1.7%(이하 연, 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3백만~1천만원 사이의 금액에 대해서도 1.2%의 금리를 제공하므로, 3백만원 이상만 예치해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치 금액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한 금리를 적용해준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가입자 중 많은 사람이 만기 전에 해약해 은행에서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상품은 그런 제약이 없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신상품부 김용남 부장은 “시중 정기예금 1년제 금리가 1% 중반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마이플러스통장은 상당히 간단한 조건으로 1.7%의 금리를 제공하므로 여유 목돈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며, “사용 시기가 정해질 때까지 여유 자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전한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고객의 거래 형태별로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으로 금융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숨겨진 1%라도 쟁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금 목적별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을 선택해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선보이는 다양한 예금상품에 주목해보자.

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고객센터 1588-1599

시니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안과 질환 5

사람의 눈보다 더 대단한 렌즈는 어디에도 없다.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키기 위해, 평소 겪었던 증상을 잘 생각해보고 예리하게 눈을 관찰해야 한다. 한길안과병원 의료진이 시니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안과 질환의 종류부터 증상, 치료법을 소개한다. Writer 조가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신체에서 눈의 역할은 매우 크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어 눈이 겪는 피로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게만 나타나던 눈 관련 질환도 이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발병하고 있다. 그렇다면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안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첫째, 낮 동안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둘째, 틈틈이 눈을 좌우 또는 위아래로 돌려 움직여준다. 셋째, 눈의 율활제인 눈물이 흘러나오도록 1분에 15~20회 정도 눈을 깜빡인다. 넷째, 30분에 한 번씩 1분 정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예방법은 ‘정기검진’임을 기억하자. 가까운 안과에서 간단한 검진만 받아도 치명적이고 위험한 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시니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안과 질환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백내장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는 병이다.

증상

-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시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 같다.
- 야간에 눈이 부시고 시력이 떨어져 운전하기 어렵다.
- 거울에 비친 동공 부위가 하얗게 보인다.
- 평소 돋보기를 착용하지만, 어느 순간 돋보기가 없어도 글씨가 잘 보인다.

종류와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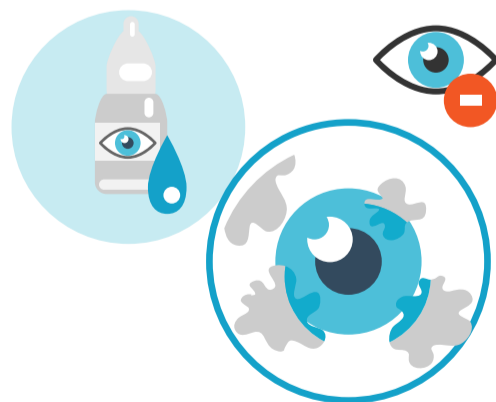
노안성 백내장: 정기적인 관찰 및 약물치료를 하면서 최적의 수술 시기를 잡는 것이 좋다.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백내장은 수술 후에도 예후가 나쁘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합병성 백내장: 약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백내장으로, 합병된 질환에 따라 시력의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외상성 백내장: 망막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흔하므로 수술 후 시력 회복력이 뛰어나지 않다.

후발성 백내장: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재발하는 경우다. 수술 후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환자의 10~30%가 후발성 백내장을 경험한다. 레이저를 이용해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망막박리

망막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층들이 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증상

- 눈앞에 번쩍거리는 것이 보인다.
- 사방 어디를 보나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인다.
- 시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새로 생겼다.
- 깜박거림이나 인공눈물을 넣어도 침침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종류와 치료법

열공성 망막박리: 외상이나 안내 수술, 고도 근시 등의 이유로 망막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눈 안을 채우던 내용물이 들어가 망막의 층을 떨어뜨린다. 반드시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공막돌출술, 유리체 절제술, 가스 주입술, 실리온 기름 주입술, 눈속 레이저 등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

건인성 망막박리: 당뇨 망막병증이나 포도막염 환자의 망막에 단단한 섬유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이 망막을 당김으로써 발생한다. 유리체 절제술로 건인 조직을 제거하면 된다.

삼출성 망막박리: 망막의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구멍이 없는데도 망막 사이에 액체가 쌓여 층이 떨어지는 것이다. 삼출성 망막박리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호전된다.

눈 종풍

망막혈관폐쇄증이라고도 불리며 망막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돼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병이다.

증상

- 통증 없이 갑작스럽게 시력 장애가 온다.
- 눈앞에 어른거리는 물체가 보이기도 한다.
- 갑자기 보이지 않는 증상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된다.

종류와 치료법

망막 동맥 폐쇄: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치료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망막 정맥 폐쇄: 망막의 전반적인 허혈(해당 조직에 혈액이 원활

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 의한 신형 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레이저를 이용한 범안저 광 응고술을 시행한다.

녹내장

녹내장은 급성으로 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각막 부종이 생기는 병이다.

증상

- 전조증상이 거의 없다.
- 말기가 되어 시력을 상실하기 직전까지도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법

약물 치료: 눈에 직접 약물을 넣어 안압을 떨어뜨리거나 안혈류를 증가시킨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로 안구 내의 구조를 바꾸어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폐쇄각 녹내장이나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개방각 녹내장 치료에 주로 사용한다.

수술 치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 시행한다. 간혹 수술 후 안압 상승, 저안압, 안내 출혈 및 안내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황반변성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는 병이다. 황반부는 대부분의 시세포가 밀집돼 있는 망막의 중심으로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증상

-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비틀려 보인다.
- 직선이 일렁이거나 찌그러져 보인다.
- 야외에서 먼 곳을 바라볼 때 원형의 검은 점이 보인다.
- 독서를 할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긴다.
- 욕실 타일의 선이 굵어 보인다.

예방법

금연을 실천한다. 식용유 사용을 자제하고 중성지방 섭취를 제한한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노력한다. 적정 몸무게를 유지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인다.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라면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검진을 시행한다.

< 100세 건강 프로젝트 내 몸의 9할, 눈 사용설명서 >

한길안과병원 의료진 지음 / 1만4천원 / 북마크

“공부해서 눈 주자”라고 외치는 의사들이 모였다. 바로 한길안과병원 의료진이다. 어떤 병원에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가장 가까운 안과를 찾아 간단한 눈 검사만 해봐도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우리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안과 질환 혹은 증상을 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안과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한 책이다. 문의 02-325-3691



꿈같은 편안함, 롤프 벤츠 577LSE

독일의 기술력과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기능과
세계적 디자이너의 예술 감각이 만나
탄생한 소파 브랜드 롤프 벤츠.
최상의 편안함과 아름다운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독일 명품 소파
롤프 벤츠를 기억하자. Writer 이은정



독일의 기술이 탄생시킨 편안함

독일인의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이 집약된 명품 브랜드 롤프 벤츠는 독일 특유의 우직함으로 소파 본연의 기능은 물론 사용자의 편안함,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까지 완벽하게 구현한 제품을 선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가구로 롤프 벤츠 소파를 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롤프 벤츠 577LSE(Rolf Benz 577LSE)는 일명 ‘무중력 의자’라 불린다. 리클라이너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그 위에 몸을 기댔을 때의 느낌이 마치 무중력 공간에 누워 있는 듯하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흡사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착석감은 직접 경험해보아야 알 것이다. 롤프 벤츠 577LSE는 360도 회전 메커니즘이 장착된 원형 베이스의 리클라이너다. 사용자가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체에 꼭 맞는 편안한 업홀스터리(가구 위에 씌우는 패브릭)로 제작했다. 리클라이너는 보통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 및 비율에 따라 안락함의 정도와 움직임 기능이 달라지는데, 롤프 벤츠 577LSE 리클라이너는 이를 고려해 두 가지 사이즈 버전으로 디자인해 선보인다.

세계적 디자이너와의 컬래버레이션

1959년 창업자 롤프 벤츠에 의해 독일 나골트(Nagold) 지역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롤프 벤츠는 최고급 품질의 소파와 다이닝으로 전 세계 톱 3 브랜드로서 명성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최상의 안락함과 하이모던(High-modern) 디자인을 브랜드 철학으로 지켜오고 있다. 롤프 벤츠의 모든 모델은 100% 독일 기술로 생산되며, 각기 다른 내부 도면 설계로 제작한다. 또한 모든 제품을 롤프 벤츠만의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모토로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롤프 벤츠의 뛰어난 디자인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뮤지엄을 비롯해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에도 전시될 정도다.

도전적이며 혁신적 디자인에 독일의 전통적 소파 제작 기술로 탄생한 롤프 벤츠. 독일이 만들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품 소파로서, 롤프 벤츠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품격과 디자인으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서 더욱 빛나는 예술품이다. 그렇기에 ‘소파 그 이상의 가치(More than a sofa)’로 불리는 것이다. 롤프 벤츠는 한국공식수입원이자 독일 브랜드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영동가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7850 홈페이지 www.youngdonggagu.com





유어스테이지 클럽 탐방

삶의 새로운 재미와 여유를 켜다, ‘디카와 놀자’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 포털 ‘유어스테이지’의
여러 동호회는 시니어들의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준다.
유어스테이지에서는 동호회를 ‘클럽’이라 하며 그중 2012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진 찍기 클럽인 ‘디카와 놀자’를 소개한다.

Writer 이채현(프리랜서) · Photographer 염동우(C, 영상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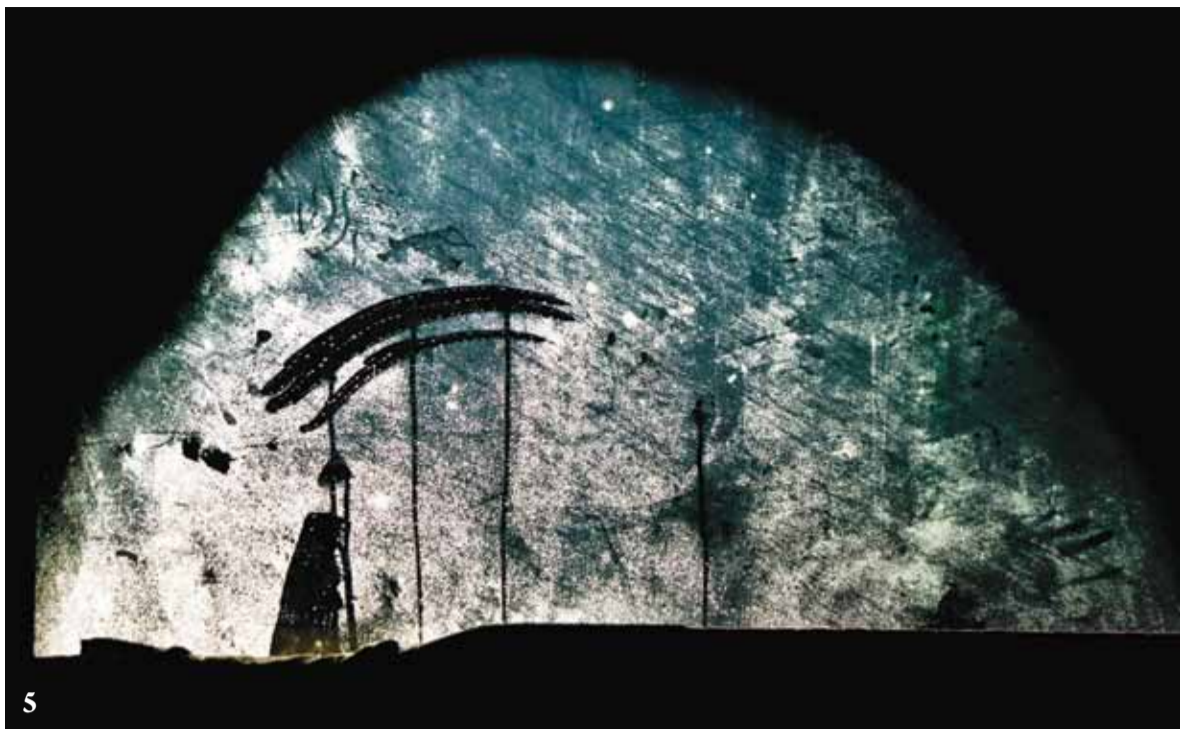


삶에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사진 찍기

지금은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활동을 하려면 사진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구·지인, 더 나아가 사회와의 소통, 개인의 기록 등을 포함해 SNS 활동은 어느 면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단지 SNS 활동을 하기 위해 사진을 배우려는 시니어들도 적지 않다. 클럽 ‘디카와 놀자’의 시삽을 맡고 있는 변용도 씨 역시 자신의 블로그 활동을 위해 60이 다 되어 처음으로 사진 찍기를 접했다.

“몇 년 전 제 나이 57세에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재미있게 운영하려면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려야겠다고요. 그래서 인근에 무료로 사진을 강습하는 곳을 찾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요에 의해 사진 찍기를 시작했지만 사진 찍는 게 좋아서, 사진에 관심을 두고 찍다 보니 배움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사진으로 클럽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죠”.

클럽 ‘디카와 놀자’는 카메라가 있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핸드폰을 포함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사진을 배우고 찍을 수 있는 곳이 ‘디카와 놀자’다. 현재 92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최근 점점 회원 수가 늘고 있다. 사진에 관심을 갖는 시니어가 많다는 증거다. 한 달에 한 번 클럽 모임을 갖는데 한 번은 외부에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 모임은 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 찍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이 클럽을 이끌어가는 시삽 변용도 씨가 강의를 맡고 있다. 외부에서 사진을 찍을 때 변용도 씨는 카메라를 가져 가지 않는다. 클럽 회원들의 사진 찍기를 도와주고, 또 사진에 대한 회원들의 여러 궁금증에 대해 언제든지 응대하기 위해서다. ‘디카와 놀자’는 작품 사진을 찍기 위한 모임이 아닌 카메라를 통



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활동할 수 있다.

“사진은 생활에 즐거움을, 삶에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가족의 행복한 시간, 손주들의 웃는 모습을 기록해놓을 수 있으니 즐겁고, 사진 찍는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도 사진 찍는 시간 동안은 자연이나 사물과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도 사진을 찍는 매력입니다.”

시삽 변용도 씨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사진 찍는 취미를 갖길 권한다.

사진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고, 혼자서 혹은 여럿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다. 사진을 찍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푸근해지고 즐거워지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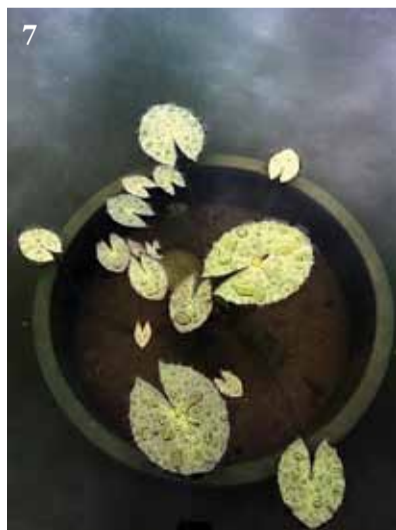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고 생명은 점점 연장되는데, 취미가 없다면 삶은 무료할 것이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에서 도태돼 위축되지 않으려면 취미 활동은 아주 중요한 삶의 포인트다. 특히 유어스테이지의 클럽 활동은 취미 활동과 더불어 사람들과 소통까지 할 수 있는 장이 되니 일석이조다.

취미는 개인을 발전시킨다

대부분의 취미 활동이 그렇듯이 사진 찍기 역시 배울수록 욕심이 생겨 더 잘 찍기를, 새로운 피사체를 찍어보길 원한다. 사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원래 사진을 취미로 하던 사람들도 ‘디카와 놀자’ 클럽에 가입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

“저는 ‘디카와 놀자’에 가입하기 전부터 사진을 취미로 했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클럽에 가입하게 됐죠. 구도 잡는 법과 이론에 대해 좀 더 알게 돼 내가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피사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게 제 사진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사진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예전보다 사진 찍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전에는 ‘비 오는 날에는 사진을 찍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비 오는 날엔 물방울을 찍으면 되고, 바람 부는 날엔 흔들리는 사진을, 안개 낀 날엔 안개를 찍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피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진에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클럽 회원인 류제택 씨는 이처럼 사진에 더 많은 재미를 붙여 요즘 전국 어디든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있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카메라를 들고 나선다. 그렇게 찍은 사진을 유어스테이지를 통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1 사진을 사랑하는 ‘디카와 놀자’ 회원들의 모습.
- 2 회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 3 변용도 씨가 2013년 부산일보 주최 전국사진대전에서 2등 상인 우수상을 받은 ‘닭장’.
- 4 두물머리에서 이슬 맺힌 연잎의 영롱함을 촬영한 최수원 씨의 사진.
- 5 이른 아침, 물기가 서린 거실 창문의 커튼을 열면서 새겨진 흔적을 촬영한 변용도 씨의 사진.
- 6 사진작가 변용도 씨가 사진 찍는 법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다.
- 7 시흥의 향토유적 18호로 지정된 관곡지의 연꽃 천국에서 촬영한 류제택 씨의 사진.
- 8 맥문동의 보라색 꽃이 한창인 8월에 촬영한 류제택 씨의 사진.



클럽 회원인 최수원 씨는 유어스테이지의 여러 클럽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원 중 하나다. 학창 시절 미술을 공부한 그는 사진에도 관심이 있어 오래전부터 카메라가 익숙하다. 유어스테이지의 예전 사진 클럽인 ‘포토즈’부터 활동해 ‘디카와 놀자’까지 꾸준히 사진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현재 몇몇 지인들과 함께 사진 전시를 할 만큼 뛰어난 실력자가 됐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집에서 손주를 봐줘야 하는 저희 세대는 취미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없고 무료합니다. 그래서 사회와의 소통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유어스테이지의 클럽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카와 놀자’ 클럽 활동을 하면서 사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사체를 찍더라도 찍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사진의 이런 매력 때문에 카메라를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취미를 갖는 것보다 하나의 취미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 스스로도 발전하는 게 인생 후반을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이다.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취미로 삼는 것보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전에 희망했던 것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는지,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면 어떤 걸 취미로 삼으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 취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취미를 갖는 것은 단지 내 생활의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게 되고, 또 그게 제2의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시삽 변용도 씨는 이처럼 좋은 취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WATCH

론진, 론진 미니 코리아 에디션

론진이 한국 여성들만을 위한 시계 ‘론진 미니 코리아 에디션’을 제안한다. L298, 2의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이 에디션은 16mm의 미니 사이즈 다이얼이 우아한 무드를 자아내고, 베젤에 다 이아몬드들을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부드러운 레드 스트랩으로 선보이며 컬러는 레드, 라벤더, 베이지 등으로 다양하게 선보인다. 8월 21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선출시했으며, 9월 중 전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사전 예약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3149-8241

RESORT



클럽메드, 겨울 조기예약 프로모션

리조트 클럽메드가 올겨울 휴가를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겨울 휴가 조기예약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이 프로모션은 발리, 푸켓, 빈탄, 오키나와 이시가키 카바라, 계림, 몰디브 카니 리조트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예약 마감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문의 02-3452-0123

GOLF



마샬골프, 마샬-V5 출시

마샬골프가 편안한 스윙과 정확한 방향성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골드 에디션 마샬-V5’를 출시했다. 최첨단 소재인 고탄성 스티키 메탈로 제작해 단조 아이언의 부드러운 타구감과 편안한 조작성을 선사해 비거리의 증대를 실현해준다. 문의 02-325-5924

FURNITURE



덕시아나, 익스클루시브 라인

덕시아나가 브랜드의 가장 최상위 모델인 익스클루시브 라인을 소개한다. 이 라인은 고객의 취향에 맞게 주문할 수 있는 커스텀 오더메이드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익스클루시브 베드는 장인의 수공예로 제작해 완벽한 채형별 맞춤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문의 02-512-6512

LIQUOR



발렌타인, 6종 추석 선물세트 출시

발렌타인이 추석을 맞아 6종류의 추석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품격 있는 패키지 디자인으로 발렌타인 12년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스, 발렌타인 17년, 발렌타인 21년, 발렌타인 리미티드, 발렌타인 30년 등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66-5700

CAR



BMW 코리아, 뉴 X5 M, 뉴 X6 M 공식 출시

BMW 코리아가 강력한 파워와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뉴 X5 M’과 ‘뉴 X6 M’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 BMW의 서브 브랜드인 ‘M’의 최신 시뮬구동 스포츠 액티비티 차량과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모델로 최상의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문의 02-2038-8214

FASHION



말로, 베이식 캐시미어 머플러

말로가 2015 F/W 시즌을 맞이해 ‘베이식 캐시미어 머플러’를 제안한다. 말로의 머플러는 고급스러운 100% 캐시미어 소재로 제작해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보온성이 특징이다. 클래식 블루, 로즈 핑크, 버건디, 캐럴 등 총 14가지 컬러로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 02-3438-6273



FASHION

브룩스 브라더스, 스포츠 코트 출시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가 가을을 맞아 피츠제럴드 핏 해리스 트위드 스포츠 코트를 출시한다. 이 코트는 최고급 양모 100%의 스코틀랜드산 해리스 트위드 소재로 만든 것이 특징. 복원력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의 체형에 적합한 피츠제럴드 핏에 코트 뒤 중심에 트임 디테일을 가미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변함없는 클래식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47-8883



FASHION



피아제, 시크릿 & 라이트 컬렉션

피아제가 파리 워 드 라 페 부티크에서 지난 7월 새로운 하이 주얼리 시계 컬렉션인 ‘시크릿 & 라이트’를 선보였다. 베니스의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베니스의 빛’,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사마르칸트의 건축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사마르칸트의 빛’ 컬렉션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5656

WATCH



쇼파드, L.U.C XPS 35mm 에스프리 드 플러리에 출시

155년 전통의 스위스 시계 및 주얼리 명가 쇼파드가 우아함과 기술력을 담은 ‘L.U.C XPS 35mm 에스프리 드 플러리에’를 새롭게 선보인다. 베젤에 세팅한 화려한 다이아몬드와 파란빛의 자개 다이얼이 고급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6905-3390

HOTEL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웨딩 사랑(애) 프로모션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애(愛)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결혼을 75일 앞둔 고객은 식사 할인과 꽃장식 20% 할인, 결혼식이 6개월 이상 남은 고객은 식사 5%, 음·주류 10% 할인과 꽃장식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40-8100

WATCH



파텍필립, 칼라트라바 Ref. 7120G-001

파텍필립이 ‘칼라트라바 Ref. 7120G-001’을 제안한다. 31mm 크기의 화이트 골드 다이얼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메커니컬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215 PS를 탑재, 44시간 동안 자동으로 작동 가능하다. 문의 02-6905-3339

FURNITURE



몰 테니앤 씨, 리베르시14 소파

몰 테니앤 씨가 10년 전 리베르시14 소파를 탄생시킨 한스 바텐슈타인의 헌정 기념으로 ‘리베르시 14’를 새롭게 선보인다.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 등받이 조절이 가능하고 패딩과 쿠션을 이용해 좌석 공간을 나눌 수 있다. 문의 02-543-5093

FASHION



가이거, 백 투 더 루트 컬렉션

오스트리아 패션 브랜드 가이거가 이번 시즌 ‘백 투 더 루트’를 테마로 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가이거를 상징하는 보일드 울과 새롭게 개발한 부클 울, 램스 울 등이 조화를 이루는 감각적인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772-3503

BOOK



조용헌의 휴휴명당

빌딩숲에 갇혀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도시인이라면 눈여겨보자. 동양학자 조용헌이 30여 년간 온 강산을 누비며 답사한 끝에 선별한 명당 22곳을 추천했다. 잠시 머무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몸속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곳.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면 바로 이런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조용헌 지음, 불광출판사, 1만8천원.



아들

최근 북유럽 문학이 강세다. 요 네스뵈 역시 그 돌풍의 핵심에 있는 노르웨이의 국민 작가. 이 작품은 북유럽은 물론 영국, 미국, 전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힌 소설이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주인공이 동료 죄수로부터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배후를 알게 된 뒤 탈옥을 감행해 복수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요 네스뵈 지음, 노진선 옮김, 비제, 1만4천8백원.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광화문을 걷다 보면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걸린 글판이 눈에 들어온다. 지난 25년간 그곳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번쯤 걸음을 멈추고 골똥히 만드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해마다 화제가 된 글판 속의 시와 글들을 모아 만든 책. 그동안 글귀들의 원작이 궁금했다면 한번 펼쳐보자. 광화문글판 문헌선정위원회 엮음, 교보문고, 1만2천5백원.



우리가 이래서 사는가 보다

창현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여성생애사 구술채록 총서 중 연극인 이병복 편이다. 이병복은 연극계뿐 아니라 문화계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꼽히는 인물로, 우리나라의 무대미술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개척한 무대미술가다. 이 책에서는 그녀의 성장 과정과 대표적인 활동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이병복의 육성으로 만날 수 있다. 창강문화산업대학교, 3만3천원.

최종태, 2015, *Untitled*, Bronze, 100 x 100 x 100 cm

최종태 CHOI JONG TAE RETROSPECTIVE

2015.09.01 - 2015.11.29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 최종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MMCA, GWACHEON
313 GWANGMYEONG-RO, GWACHEON-SI,
GYEONGGI-DO, SOUTH KOREA, 13829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최종태 Korean Contemporary Artists Series Choi Jong Tae Retrospectiv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최종태 CHOI JONG TAE RETROSPECTIVE

2015.09.01 - 2015.11.29

313 GWANGMYEONG-RO, GWACHEON-SI,
GYEONGGI-DO, SOUTH KOREA, 13829

Korean Contemporary Artists Series
Choi Jong Tae Retrospective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HISTORY AND HEROES.



LUMINOR SUBMERSIBLE 1950
3 DAYS CHRONO FLYBACK
AUTOMATIC TITANIO (REF. 615)

PANERAI
LABORATORIO DI IDEE.

현대 압구정본점 2F 02-3449-5922 갤러리아 EAST 1F 02-512-6088
신세계 본점 B1F 02-778-7870 신세계 강남점 2F 02-3479-1986 신세계 센텀시티점 2F 051-745-1350

파네라이 제품은 위의 공식 매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PANERAI.COM